

● **연중 제 30주일 강론**

‘막시밀리아노 콜베’(1894~1941) 성인을 아실 것
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서
슬퍼런 지옥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수감자 때문에 차출되어 아사감방(물 한 모금 주
지 않고 굶겨 죽이는 감방)에 끌려가던 10명의
수감자 중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한 명의 수인을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걸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콜베 성인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
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되셨
습니다.

그렇다면, 콜베 성인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과 은총의 주인공인 그의 이름은 ‘가조프니
체크’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
망으로 끝나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
신 콜베 성인의 시복식에 참석하게 되고 영광스
럽게 교황 바오로 6세도 알현하게 됩니다. 가조
프니체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
니다.

“고결하신 콜베 신부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대
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어 내가 그분 죽음으로
덤의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신부님의 숭고한 죽
음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여 훗날 그분을 뵈
기가 죄스럽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
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에페 1, 7)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나를 위하
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
자가의 끔찍한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

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귀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택하였다면, 우리는 남은 생
애를, 그분 때문에 거저 얻어진 삶을 얼마나 더
잘 살아야겠습니까?

하물며 하느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택하셨
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더
잘 살아야겠습니까. 실로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앞서 우
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느
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미력하나마 우리의 전부인 사랑을 주님께 드려
야 합니다. 그분께서 전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
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뽑으라면
다음 말씀일듯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 27)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훗날 당신을
거슬러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아셨던 하느님의
지극한 인간 사랑은 창조주인 하느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을 하느
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까닭은, 당신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이웃들을 보면서 당신을 ‘보
라’하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성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
요한 4, 20)

내 곁에 있는 이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죽음에 보
답해 드릴 수 있는 길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
고 그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전 어느 가수가 불렀던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랫말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
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 미워하
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
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だ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내 그립고 아름다운 별은 바로 하느님 나라, 그
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별, 아버지의 집
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인 것입니다.

이웃이 하느님이고, 이웃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의 인간 창조의 가르침이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르침에서 엄히 지적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매광하 신부 <춘천교구 갯세마니피정의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성모회 단합모임 안내
오는 11월 1일(토)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공소 자매님들의 단합 모임을 가집니다. 오셔서 맞난 음식과 즐거운 담소도 나누세요
문의 : 이클라우디아 성모회장 (519-570-4790)

● 음악의 밤 안내
11월 28일에 안토니다니엘성당에서 주최하는 음악의 밤에 우리 공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찬 화음을 위해 노래에 관심 있는 교우는 연습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단결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문의: 김 올리안나 성가 단장 (519 271 9418)

● 사제관 꾸미기 협조 안내
그동안 교우들의 협력아래 공소 교육관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제관을 꾸며할 시간입니다. 현재 사제관의 단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몇몇 품목이 더 필요 합니다.
* 소파 (1인용 과 2인용), End Table Set,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등
문의 : 이명희 관리부장 B) 519-894-3533 H) 519-896-9628 C) 226-338-0679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3주년이 되어 갑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당 사용시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정문쪽 화장실은 사용하지 마시고 라이프 센타내의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항상 경건하고 정숙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친교 식사후에 어린 교우들의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주간 전례
▶10월28일(화) 오후 8시, 성시몬과 성유다 축일
▶10월30일(목) 낮 12시, 연중 제 30주간목요일
▶10월31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30주간금요일
▶11월 1일(토)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성모 신심미사
11월 1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위령성월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10일 - 3월 24일 14박15일
순례비용: \$3,5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23일(선착순 30명)
신청: 선교부장

2008-42 2008. 10. 26.

연중 제 30주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에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답송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407) 하나이신 천주
봉헌 (513) 명병과 포도주
성체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퇴장 (19) 주를 따르리

독서

10월 26일	박순웅	박복순
11월 02일	이 민	이환란
11월 09일	장명길	장용경

봉헌

10월 26일	노동원	노성은
11월 02일	박순웅	박복순
11월 09일	이 민	이환란

복사

10월 26일	박규환	노승범
11월 2일	구한힘	이수민
11월 9일	류지현	이현재

친교

10 월 26일	신비	11월 2일	환희
11 월 9일	영광	11월 16일	장미